



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 개최

- 장례시설 선정부터 화장시설 예약까지 전담공무원을 통한 장례 절차 지원
- 시민안전보험 신속 지급을 위해 보장항목 협의 및 청구 서류 간소화

□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4일(토)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*를 개최했다.

* 국무조정실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외교부, 법무부, 국방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, 경찰청, 소방청, 방송통신위원회, 8개 시도, 무안군, 한국공항공사 등 참석

□ 관계부처는 희생자 179분 전원의 DNA 분석이 완료됨에 따라 유가족 의사를 존중하여 장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있다.

○ 보건복지부는 장례지도사를 투입하여 지금까지 다수의 희생자를 수습했고, 장례 절차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, 장례문화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.

○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는 현장에서 전담공무원을 통해 장례 시기, 장소 등에 대한 유가족의 뜻을 확인하고 안치부터 발인, 화장, 장지 이동까지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있다.

□ 정부는 국가애도기간 종료(1.4.) 이후에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.

○ 국토교통부는 희생자들을 한 번 더 애도할 수 있도록 2차 위령제 개최를 준비 중이며,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는 합동분향소 12개소를 관계기관

협의를 통해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.

- 아울러, 행정안전부는 보험사 간 약관 해석의 차이로 지급에 혼선이 있던 시민안전보험의 일부 보장항목에 대해 보험사와 지급 협의를 완료했다.
- 또한, 유가족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서류 3종*을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희생자 명단 공문으로 대체했다.
- * 공제조합지급내역서,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서, 사회재난사망확인서
-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“유가족에게 인도된 희생자분들이 늘어난 만큼 장례 절차를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.”라며,
- “전국 각지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, 아픔을 함께 해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.”라고 전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김명신 (044-200-2239)
		담당자	사무관	임지영 (044-200-2240)
<공동>	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	김유순 (044-205-63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종집 (044-205-6340)
<공동>	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곽영필 (044-201-4294)
		담당자	사무관	조종관 (044-201-4254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

